



‘돈키호테 하이라이트’가 오는 28일과 29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집시들의 춤...이색 돈키호테 만난다

시립발레단 28~29일 북구문화센터...돈키호테보다 이발사·여관집 딸 사랑이야기에 초점

원작과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다른 서사에 주목하는 작품을 ‘스핀오프’라 부른다. 고전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가 아니라 ‘여관집 여인’ (키트리)과 ‘이발사’ (박진)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는 ‘돈키호테의 또 다른 버전’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박경숙·이하 발레단)은 초청공연 ‘돈키호테 하이라이트’를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3시 30분) 이틀에 걸쳐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발레단이 작년 10월 ACC에서 진행했던 공연을 특별기획해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평범한 이발사 ‘박진’과 여관집 딸 ‘키트리’.

광장 일대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던 ‘로렌조’는 딸 키트리가 바질과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못마땅해 한다. 그는 재산이 풍족한 귀족 ‘가마쉬’와 딸을 정략 결혼시키려 하지만 거부로 당한다.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이지만 원작의 내용을 몰라도 프롤로그와 막

간에 조가영 해설자가 짙막한 해석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공연의 막은 키트리(강민지, 공유민)와 바질(박관우, 보그단), 세기디아(김희준 등), 키트리의 친구들(임예섭 등) 및 토레로스(이기형 등)의 춤이 연다.

특히 강강을 연상하게 하는 붉은 티어 치마(춤이 나뉘는 치마)로 치장한 투우사들이 화려한 군무를 펼칠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여기에 안무가 크리스토프 노보그로츠키의 현대적 해석이 가미됐다는 점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 돈키호테의 꿈속 서사에 등장하는 드림퀸(박선주)과 큐피드(곽지오), 돈키호테가 연모하는 돌시네아로 작각한 키트리의 솔로 무대 등 풍부한 레퍼토리로 마련돼 있다.

아울러 ‘드림퀸’은 키트리와 바질을 쫓아갔다가 기절하게 된 돈키호테의 상황을 담은 2막으로 집시킹(하승수)과 퀸(김희현)의 춤 등이 압권이다. 스페인의 정열적인 몸짓과 중력을 거스르는 점프는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막은 로렌조의 여관에서 진행되는 결혼식. 기존의 국립발레단이 진행했던 2막으로 구성된 공연에 비해 이번 작품만의 차별점을 감상할 수 있다. 두 연인이 어우러져 주는 ‘그랑 파 드 되(두 사람의 춤)’를 보며 관객들은 ‘인간의 순수한 근원인 뭉’을 통해 아름다움을 전하는 발레예술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레단은 최근 134회 정기공연 ‘DIVINE’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도 발레단만의 색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한편 박경숙 예술감독은 “‘돈키호테 하이라이트’는 길라쇼처럼 해설을 곁들여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돈키호테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하고 호응이 좋았던 장면들을 발췌한 것”이라며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티켓 1만 원, 티켓링크에서 단독 판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고향 골목마다 유쾌한 그리움이...

이형우 ‘이상한 은유’ 전 27일까지 양림미술관

작가에게 고향은 남다른 예술적 DNA를 물려받은 곳이자 끝없는 창작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은 비단 예술가가 아니라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고향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인지 모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강산이 변하기를 네 번이나 되풀이했겠네요. 그럼에도 오래 전 기억은 그 시절, 그 골목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틈만 나면 사직공원 계단에 올라 그렸던 동네 모습이 마치 인화된 사진처럼 또렷이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형우 작가가 25번째 개인전을 갖고 있다. 27일까지 양림미술관이며 모두 30여 점을 출품했다.

‘이상한 은유’라는 전시 주제는 어쩌면 고향 너머의 인간의 삶을 변주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엉뚱하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 은유의 자락을 깔아놓았다는 의미일 터.

작가는 “양림동의 변화된 모습이 아쉬움과 그리움을 주지만 그래도 작가는 꿈을 꾸는 존재”라며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남아 있는 골목골목에 그림으로 형상화한 은유들을 풀어놓았다”고 말했다.

눈길을 잡아끄는 작품은 ‘Dogfather’.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아버지’에 관한 패러디다. ‘Dogfather’의 ‘dog’는 ‘god’를 뒤집은 것”이라는 설명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우직한 소의 얼굴을 한 아버지는 늘 감투를 입고 살아간다. 가족 부양은 물론 노부모까지 모셔야 하는 무게를 지고



‘Dogfather’

운명의 수레바퀴를 씹어 굴려야 한다. 철 모르는 강아지는 긴 헛바닥을 내밀며 수레 뒤를 따르는데 웃픈 풍경에 씁쓸함이 밀려온다.

‘변주는 가능할까’는 악보를 읽기도 어려워 보이는 중년의 사내가 변주에 도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내의 도전에 피아노 위의 강아지는 마치 바웃기라도 하듯 멀뚱히 쳐다본다. 그러나 강아지 옆 배경에는 오페라의 유령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에게 오페라의 유령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 작가는 “은유는 웃기기도 슬프기도 한 상황을 유쾌하게 반전시키는 묘미를 담고 있다”며 “오늘의 삶이 험잡고 버거운 분들도 있었지만 작품을 보고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최근 여수 에그갤러리 초대전을 가진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국 단위 콩쿠르 광주서 열린다

‘솔림 성악콩쿠르’ 본선 무대...21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전국단위 콩쿠르 무대가 지역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워킹위드어스가 주최하고 솔림성악콩쿠르 운영위가 주관하는 ‘제2회 솔림 성악콩쿠르’ 본선 무대가 오는 21일 오후 5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진행된다.

본선 무대에 오를 경쟁자들은 한국 가곡 1곡과 독, 불, 이, 영미 가곡 중 1곡, 오페라, 오라토리오, 콘체르토 아리아 중 1곡의 총 3곡을 과제곡으로 연주하게 된다. 모든 곡은 원어·원조로 암보(악보 없이)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일 서울 삼익아트홀과 14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예선(사진)을 거쳤다. 총 103명이 접수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5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올라 총 1900만 원 상금을 두고 경쟁한다. 1등 수상자는 수상액의 영예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최고 득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솔림 특별상을 비롯해 광주전남 소재 중·고교 졸업 후 타지에서 공부한 대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인우특별상, 광주전남 소재 대학 재학생



(졸업생) 중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하는 광주오페라단 특별상 등도 수여된다.

콩쿠르 관계자는 “이번 콩쿠르는 정자 국내외 무대를 비상하게 될 미래 주인공들의 무대”라며 “문화예술계의 지평을 열어갈 미래세대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진행, 입상자 맞춤형 등의 경품제공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문의는 솔림성악콩쿠르 사무국. /최류민 기자 rubi@

시대를, 삶을 담은 건축물

‘사진작가가 바라본 근현대 건축 풍경’ 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20일~9월 20일

개항 이후 서양식 건물, 판자집, 공동주택, 새마을 주택... 시대에 따라 건축물도 바뀌어 왔다.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주거 형태는 당대 사람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물의 특징과 사회상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이강현, ACC)이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 ‘사진작가가 바라본 근현대 건축 풍경’을 연다.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

이번 전시는 근현대 건축의 변화 과정을 비롯해 안에 담긴 삶의 단면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ACC는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사진가’를 주제로 작품을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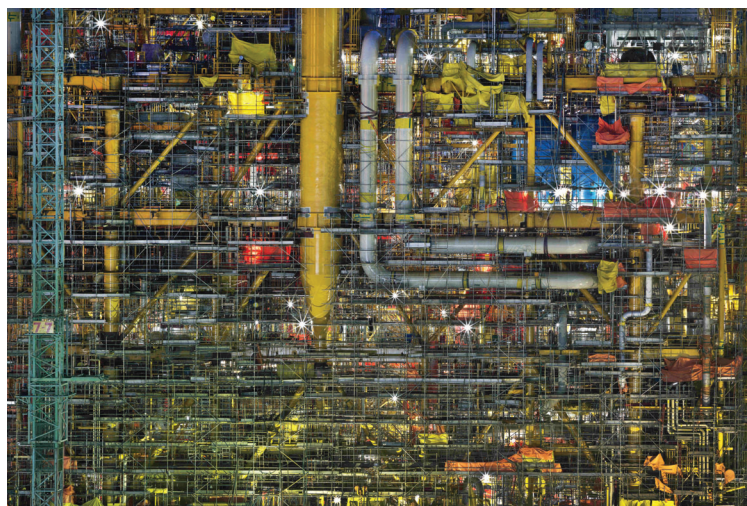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 자료 중 근현대 건축을 담은 전채홍, 김기찬, 이정록, 조춘만 사진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우리의 근현대 건축은 산업구조에 따라 적잖은 변모를 거듭했다.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서양식 근대건축물(전채홍 작가)이 등장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한 판자집과 같은 공동주택(김기찬 작가)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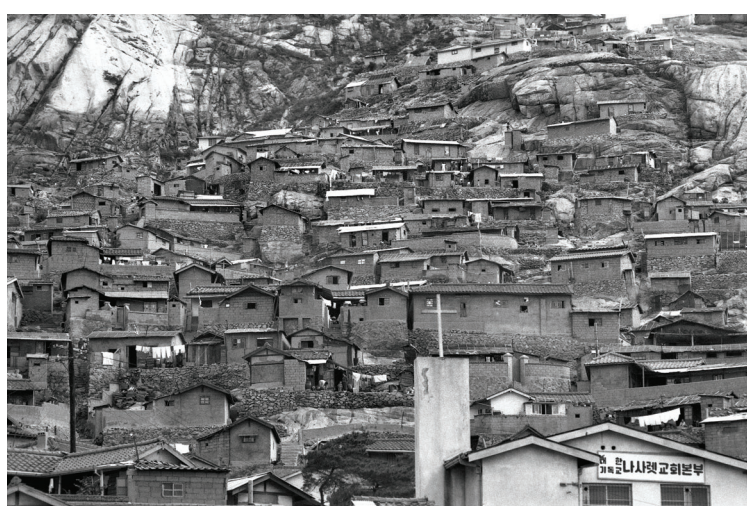
새마을 운동의 농촌 생활 개선사업도 가속의 형태를 변모시켰다. 초가집이나 한옥집이 새마을 주택(이정록 작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집으로 변했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맞물려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조춘만 작가)도 조성됐다.

시대별 특징을 담은 사진은 아시아문화박물관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네 명의 작가 사진을 매개로 대한민국 근현대 건축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마다 작품 안에 내재된 시대의 사회상과 우리 삶의 다채로운 모습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춘만의 작품.



김기찬의 작품.

금동신발 꾸미고 문화재 과자 발굴하고

국립나주박물관, 8월 1~5일 여름방학 체험 행사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5~6세기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신발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춰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금동신발의 물고기 장식을 꾸며볼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이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 (관장 은화수)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석등’, ‘고분 속 보물’, ‘금동신발’, ‘발굴’.

먼저 ‘나주로 돌아온 석등’은 1929년에 나주를 떠나 88년 만에 돌아온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실로 만드는 문화재 이야기’는 실로 짜여진 회화라는 뜻의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대 문화유산들을 실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다.

‘똥방똥방, 나는 금속공예가!’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의 장식 방법 중 하나인 타출(打出) 기법을 활용해 복암리 3호 무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물고기 장식을 꾸며보는 체험이다.

‘땅속에서 보물을 찾아요!’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과자로 문화재 발굴놀이 키트를 만들고, 문화재 모양 과자를 발굴해 보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박물관은 특별한 캠핑 프로그램인 ‘1박2일 달빛 역사여행’을 8월 4~5일에 걸쳐 1박 2일로 진행한다.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나주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박물관에서 캠핑도 할 수 있다. 어린이(초등학생 이상)가 포함된 가족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박물관 누리집에서 교육별 해당 기간에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